

# 편모가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 실태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Conditions of family life education and program development for single-mother family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 경 신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Kim, Kyeong Shi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investigate the conditions of family life education and to develop an effective program for single-mother families.

To study these objectives, two kinds of questionnaire were used and the data were obtained through 60 officials and 173 single mothers.

The most frequently educated topic by organizations was counseling and mental hygiene. Family relationships and women's activity were following important topics, but family relationships was most needed topic by officials and single mothers.

Concurrent education type for mother and children was more preferred and its appraisal was relatively high. For effectiveness in education, single mothers and officials both demanded more practical and easy understandable contents.

According to above results, the concurrent-type program for strong mother-children relationships that emphasized communication skills, psychological strategies, and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system was proposed.

## I. 서론

통계청(1966, 1990)의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편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구수는 1966년 392천 가구에서 1990년 889천 가구로 증가하였고 이중 편모가족 비율은 78.8%에 이르고 있다. 이 사이 이혼가구는 35천에서 174천으로 5배 정도 증가하였고, 사별 가구수도 455천에서 1196천으로 2.6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혼율 상승을 감안한다면 편부모가족 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리라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혼율이 높은 미국사회의 경우를 보면 1970년부터 1991년 사이에 편부모 가족 비율이 11%에서 22%로 상승하였고, 이들 대부분이 편모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든 아동의 반수 정도가 18세 이전에 편모와 더불어 생활하는 시기를 경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U.S. Bureau of the Census, 1992). 이러한 국내외 추세로 본다면 편모가족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편모가족은 주요한 가족구성원의 결손으로 인하여 흔히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녀에게 부모 모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역할부담,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에 대해 자녀가 느끼는 책임감 등 정신적인 갈등이 있게 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결혼 혹은 재혼의 의사결정 문제 등 제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편모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대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족원 스스로가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인적, 물질 자원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생활구조 개선 이외에도 정신적인 측면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는데, 특히 현대사회가 학습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원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가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가족생활교육이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

즉 가정의 제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히 대처하며 예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회의 재사회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이러한 가족생활교육이 계획적이고 실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

다(유영주·오윤자, 1990). 그러나 가정생활 향상을 위한 교육은 학교교육기관 이외에 사회단체에서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교양교육 영역에서 일부만 다루어 왔을 뿐이고, 대부분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일관성있게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최운실·강일선, 1989). 특히 편모가족과 같이 교육적 필요성이 절실한 대상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지금 현재 편모가족에 대한 교육은 행정기관에서 주로 요보호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교육시설, 자질, 재원 등이 빈약하여 교육환경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형편이고, 특히 조직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의 빠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199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편모가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실제 관련기관 종사자와 피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도와 더불어 교육실태를 조사해 보고, 이를 토대로 적합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편모가족 교육담당자들을 통해 본 가족생활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즉 교육방법 및 주제별 실시 정도는 어떠한가, 이들이 제시하는 추후교육 필요성, 성과, 애로점 및 개선점 등은 무엇인가?

2) 편모들이 응답한 가족생활교육실태는 어떠한가? 수강 방법 및 주제별 수강 횟수는 어떠한가, 이들이 제시하는 추후교육 필요성, 평가, 교육담당기관, 개선점 등은 무엇인가?

3) 선행연구 결과와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토해 볼 때,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편모가족의 특성과 적응

편모가족은 우선적으로, 결손된 가족구성원이 행해왔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를

느끼게 되는데, 당연히 편모가족에서는 가족부양자로서의 부의 역할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과도한 역할 긴장, 역할 과부담을 느끼게 된다(Berman & Turk, 1981; Weiss, 1979).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가족원에게 발생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정서적인 문제인데, 특히 절망감이나 책임감, 슬픔,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반응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김정자, 1985; 백경희, 1987; 조희선, 1991; Amato, 1987; Weinraub & Wolf, 1983). 그러므로 이러한 역할긴장과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극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편모가족의 행복도는 모자녀관계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Hansen(1986)은 건강한 편모가족의 특성은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지 외에 가족간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신뢰성 등과 관련된다고 하였고, Peterson과 Zill(1986)도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때 부모의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편모의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Berg & Kelly, 1979).

Booth와 Amato(1991), Webster-Stratton(1989)은 편모가족의 자녀의 적응에는 경제적 어려움, 역할과중, 사회인식, 정서적 지원 부족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양육기술, 어머니의 적응 상태, 자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녀의 성도 편모모가족의 적응과 연결되는 주요변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 동성 혹은 이성부모의 결혼으로 인하여 성역할이나 이성관계 학습에 있어 부적응 행동을 야기시키기도 한다(이정숙, 1979; Hetherington 등, 1982; Levinger & Moles, 1979).

또한 편모가족의 적응에는 교육지원이나 지역사회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Kennedy, 1985), 가족과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회적 활동이나 자율성 역시 영향을 미치며(Berman & Turk, 1981) 직업에 대한 태도나 만족도와도 관련된다(Campbell & Moen, 1992). 친족관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Gerstel, 1988), 실제로 친족간의 지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정

자, 1985; 안명자, 1994).

따라서 편모모가족의 적응을 위해서는 과도한 역할 긴장을 해소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율감이나 자아존중감을 확대시키고, 가족관계의 친밀성과 상호 지지를 확장하면서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편모가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 2. 편모가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

가족정책의 수단을 주로 경제적 수단의 지원체계 영역과 비경제적 지원체계 영역으로 나누어 볼 때 경제복지는 가족수당, 자녀보조급여, 출산급여, 대여금제도, 주택수당, 빈곤가족이나 의존적 가족구성원에 대한 사회보장프로그램 등 직접적인 물질 자원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해당되며, 비경제적인 것으로는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생활교육, 가족활동지원, 가족구성원의 보호(탁아, 탁노 등), 가정봉사제도, 보건유지프로그램 등 물질 지원이 전혀 배제될 수는 없으나 주로 인적, 심리적 서비스에 관련된 영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최근들어 사회복지 실천방법에 있어 대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본다면 가족복지정책의 방향도 좀더 비금전적인 서비스, 즉 교육 및 상담, 가정원조서비스, 급식이나 보육 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대상 가족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들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생활교육의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가족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강화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회문제가 계속 주목을 끌면서 가족과 사회의 연계성으로 그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각자가 끊임없이 적응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데, 가족원은 재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가족생활기술을 발달

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생활교육은 가족원으로 하여금 개인과 가족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여주고 더 나아가 사회의 역기능적 현상을 회복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편모가족에 대한 교육은 주로 모자복지담당 행정기관을 통하여 저소득층 편모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실시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편모가족 대상의 가족생활교육은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주로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한 교양지도, 생활개선 교육의 형식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들 교육은 사회가 변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0년대 후반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고 각 기관별 협조체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효율성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1). 특히 편모가족의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고 건전한 가족발달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유도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사회교육, 사조집단 형성, 전문상담, 가정조성 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 교육이 여성 가구주뿐만아닌 모자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편모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최근들어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오윤자·유영주, 1994; 옥선화 등, 1994; 최혜경 등, 1994; 홍숙자 등, 1995)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편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가족생활교육의 영역 및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대인관계기술, 의사결정기술, 가족상호작용, 자녀양육 및 지도, 가족자원관리, 결혼, 가족원의 역할 및 책임 등에 치중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부모됨과 성교육, 가족의 변화양식에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가족의 위기와 관련된 내용도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성교육,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등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증시되고 있다(Harriman, 1986).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족과 사회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편모가족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족관계, 상담·심리, 생활개선, 여성역의식, 기술·직

업, 정치·사회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실태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 방법

1) 가족생활교육 시행 실태 조사: 가족생활교육 시행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가족생활교육을 포함한 복지서비스를 주로 실시하는 일선 모자복지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한 모자교육의 유형, 주제별 횟수, 교육의 필요성, 애로점, 교육성과, 편모지원 방향, 교육 개선점 및 기타 관련제언 등을 면접 및 설문조사하였다. 교육주제는 가족생활교육의 영역 중 대표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관련기관의 교육실시 내역 및 지역사회 특성 등을 고려하면서 포괄적인 교육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업, 취미 등의 관련 교육주제를 포함시켜 구성하였다.

2) 교육 대상자의 수강실태 조사: 모자복지 관련기관의 서비스나 교육에 주로 참여하는 편모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여성교육에 포함되어 교육받은 경우와 편모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받은 경우로 나누어, 주제별 교육 수강 횟수, 교육유형, 교육요구, 교육효과, 교육기관, 교육 개선점, 복지요구 등을 면접 및 설문조사 하였다.

#### 2. 조사대상

모자복지기관 종사자로는 현재 모자복지 서비스 및 가족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대표적으로 각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를 중심으로 가정복지업무종사자, 생활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당초 서울시 등의 대도시와 기타 지역을 고려하였으나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편모지원사업 중 가족생활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 비교적 편모가족 교육이 원활히 실시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근무하는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전남 지역의 24개 시군

모두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피교육대상자 역시 광주직할시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24개 시군 모두를 빠짐없이 포함시켜 각 지역 편모가정의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배부 및 회수하였다.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편부모가정만을 교육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본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자복지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조사는 편모가정 교육 담당자를 중심으로 총 70부를 배부하였으나 62부만이 회수되었고 이 중 2부를 제외한 60부가 최종 통계처리 되었다. 편모가정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및 가족생활교육에 2회 이상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200부가 배부되었으나 182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173부만이 최종통계처리 되었다.

### 3. 조사과정 및 통계처리

본 연구의 조사시기는 1995년 11월 부터 1996년 3월까지이며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조사는 각 지역을 방문하여 간략한 설명을 통하여 배부하였고 결과는 직접 혹은 우편 회수하였다. 편모가정 어머니들에 대해서는 주로 24개 시군 모자복지 관련 기관의 담당자를 통하여 배부 및 수집하였고 일부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배부 및 회수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 자료는 SAS/PC를 통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주요 통계 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 통계가 사용되었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기관종사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고 모자복지 업무 담당 근무연수는 5년 이하가 가장 많다. 또한 편모들의 경우는 30대 중졸 이하자가 가장 많고 단순노무직으로 5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편모교육기관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
성별	남	4	6.7
	여	56	93.3
연령	20대	16	26.7
	30대	13	21.7
	40대	23	38.3
	50대 이상	8	13.3
해당업무 근무연수	5년 이하	28	46.7
	6 - 10년	14	23.3
	11 - 20년	11	18.3
	21년 이상	7	11.7
계		60	100.0

<표 2> 편모의 일반적 특성

		빈도	%
연령	20대	10	5.8
	30대	91	52.6
	40대	60	34.7
	50대	12	6.9
학력	국졸	62	35.8
	중졸	63	36.4
	고졸	43	24.9
	대졸	5	2.9
직업	단순노무직	61	35.3
	회사원	10	5.8
	상업	33	19.1
	공무원, 교사	10	5.8
	농업	36	20.8
	주부	16	9.2
	기타	7	4.0
소득	50만원 이하	93	53.7
	51-100만원	65	37.6
	101만원 이상	15	8.7
계		173	100.0

### 2. 편모가족에 대한 교육실시 실태

<표 3>은 모자복지 관련기관 종사자들이 해당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실태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분석

〈표 3〉 편모가족에 대한 교육실시 실태(기관 종사자)

		횟 수	순위			순위
교육 주제	상담,심리	81	1	교육 필요성	가족관계	1
	가족관계	62	2		상담, 심리	2
	여성의식	25	3		기술, 직업	3
	생활개선	11	4		여성의식	4
	기술,직업	5	5		생활개선	5
	정치,사회	3	6		정치, 사회	6
교육 유형	편모만 교육	45		교육 개선점	실천적, 구체적 방법제시	1
	자녀만 교육	3			쉬운 용어	2
	편모,자녀동시교육	70			프로그램 개발	3
		빈 도	%		교육시기, 시간	4
담당 기관	행정기관	10	16.7		수강기회 확대	5
	교육기관	27	45.0		강사 개발	6
	사회단체	22	36.7	애로점	예산 부족	1
	기타	1	1.7		사회인식 부족	2
	Mean	SD	여성자체의 문제		3	
교육평가	3.883	.624	조직 비효율성		4	
				법, 정책 부재	5	
				종사자 자질	6	

한 것으로 교육 횟수는 응답자의 응답 횟수를 모두 합한 숫자이다. 교육유형은 편모만 교육한 경우보다 자녀와 동시에 교육한 경우가 더 많은데, 실제 면담 조사한 결과 모자녀 동시교육은 각 시군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연 1-2회 꾸준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주제는 개인의 심리 안정 및 상담 교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가족관계, 여성의식 순이며 추후 교육계획으로는 가족관계 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 애로점은 예산이나 사회인식 부족을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교육성취에 대해서는 5점 적도로 점수화하였을 때 3.883으로 비교적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교육 개선점으로는 좀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쉬운 용어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 3. 편모의 가족생활교육 수강 실태

〈표 4〉는 편모가정 어머니들이 교육수강 실태에 대해 응답한 결과로서, 교육 유형에서는 모 혼자서 교육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은데, 기관종사자의 응답결과와 다른 이유는 모자녀 동시교육의 경우 실시횟수는 많으나 참가자 숫자가 제한되어 매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본다. 교육내용은 가족관계, 상담·심리 순으로 응답하여 이것 역시 대상 인원의 제한성 때문에 기관종사자의 응답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적절한 담당기관으로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 개선점으로는 실천적, 구체적 방법, 쉬운 용어 등 앞서 기관 종사자의 응답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육평가는 도움이 되는 편이라는 응답이 많으나 기관 종사자보다 약간 그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교육 필요성도 가족관계 다음으로 기술직업 교육을 원하고 있어 기관종사자들보다는 보다 현실적

〈표 4〉 편모의 가족생활교육 수강 실태

		횟 수	순위			순위
교육 주제	가족관계	177	1	교육 필요성	가족관계	1
	상담, 심리	91	2		기술, 직업	2
	여성의식	77	3		상담, 심리	3
	기술, 직업	56	4		생활개선	4
	생활개선	53	5		여성의식	5
	정치, 사회	12	6		정치, 사회	6
교육 유형	편모만 교육	208		교육 개선점	실천적, 구체적 방법제시	1
	자녀만 교육	40			쉬운 용어	2
	편모, 자녀동시교육	139			교육시기, 시간	3
	빈 도	%	프로그램 개발		4	
담당 기관	행정기관	44	25.4		강사 개발	5
	교육기관	75	43.4		수강기회 확대	6
	사회단체	49	28.3	편모가족 지원요구	경제지원 확대	1
	기타	5	2.9		직업교육, 알선	2
	Mean	SD	주거, 편의시설 제공		3	
교육평가		3.809	.640		상담, 교육	4
					자조조직, 사회 활동 지원	5

인 요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편모가정에 대한 지원 요구는 경제적인 측면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선행연구 및 앞서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족생활교육의 전반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험적 교육프로그램을 설정해 보기로 한다.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몇가지 검토사항이 있었는데, 첫째 프로그램 유형에 있어서는 실태조사에서 보여주듯이 모자녀 동시교육의 비중이 높고 그 평가도 긍정적인 편이어서 본 프로그램 역시 모자녀 동시교육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역시 실태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가족생활교육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교육 요구가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공동교육에서는 건강한 모자녀관계와 그 실천적 방법인 대화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모대상교육에서는 편모가족 어머니들의 자존감과 독립적 능력을 고양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선행연구(김재인, 1995; 한국여성개발원, 1987; 한정자, 1984)에서 그 중요성을 지적한 여성의식교육을 중심으로 편모의 정신건강과 자율감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첨가하였다. 또한 자녀대상 교육에서는 실제로 모자녀 동시 교육에서 주요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김태미, 1994)을 토대로 하되, 특히 부 부재로 인하여 성역할 교육이 부족하기 쉽다고 보고 자녀들의 성역할 정체감 획득을 도와주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체성 확립은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편모가족 자녀의

사회집단성, 도덕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김종우 등, 1995; McLanahan & Sandefur, 1994), 사회적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실천하면서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사회인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세째, 구체적 내용 설정에 있어서는 실태 조사에서 기관 종사자, 교육 대상자 모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내용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내용 구성에 참고하였으며 개방형 질문 항목에서 제시된 기타 제안점들 역시 고려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대로 편부모가족 구성원들의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자율감이나 자아존중감 발달, 가족간의 친밀성이나 상호작용 증가, 주변 환경으로 부터의 지지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요인들 역시 고려하였다.

\* 프로그램 유형: 모자녀 동시교육형 프로그램

\* 교육집단 규모(공동강의 기준): 모자녀 20-50쌍

\* 학습방법: 공동 강의 - 강의 및 발표, 토론, 질의 응답

공동 활동 - 집단상담, 편지쓰기, 체육활동, 레크레이션 등

\* 수업단위: 강의는 50분 1단위 기준으로 2단위교육으로 편성하고 활동은 내용에 따라 2단위 및 3단위로 편성함. 따라서 각 교육유형별 총 교육단위는 4~5단위임

\* 교육내용 지침:

- (1) 주제와 내용이 일관적이고 문제해결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 (2)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3) 실제적인 활용방법을 제시해 준다.
- (4) 교육대상자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5) 모자녀 동시교육의 장점 특히 상호 피드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 학습 진행방법:

- (1) 수업은 크게 도입, 전개, 마무리의 순으로 진행한다.
- (2) 도입단계에서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3) 의견제시를 격려하되 다수의 참여를 유도한다.
- (4) 주요 내용을 지침, 활동목록 등으로 요약화하여 제시한다.
- (5)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하며 해결책 찾기에 적극 참여 하도록 격려하여 그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한다.
- (6) 마무리 단계에서는 강의내용을 요약해주고 실천항목들을 정리 해줌으로써 후속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화한다.

## V. 결 론

연구결과에 따르면, 편모가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교육담당자 및 교육 대상자 모두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평가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담당자와 대상자의 요구가 불일치하는 측면도 나타났고 교육 실시자로서 주목해야 할 몇가지 개선점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를 토대로 구체적인 교육 방향, 방법 등에 대해 몇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육대상 측면

- 1) 편모가족의 모나 자녀는 가족생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역할결손에 따른 가족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 2)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을 구체적 실천지침으로 요약화하여 가정에 상시 비치하고 응용한다.
- 3) 교육 제공자에 대해 주제나 내용등에 관련된 적절한 제안과 평가를 함으로써 추후 교육에 응용토록 한다.

### 2. 교육주체 측면

- 1) 앞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대로 교육이 곧 실생활에 응용되기 위해서는 실천적,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공동 교육

강 의 주 제	건강한 모자녀관계와 바람직한 대화 (2단위)
<p>목표</p>	<p>편모가족의 어려움을 토론하고 극복방법을 모색해 본다                      사회의 변화에 가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것인지, 특히 편모의 역할은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 인지하게 한다.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p>
<p>1단위 도입</p> <p>전개</p> <p>2단위</p> <p>마무리</p>	<p>편모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머니들과 자녀들에게 질문하되 예를 몇가지 제시하면서 반응을 주시한다.                      실제로 편모가정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자료를 제시하되 사회적 편견에 의한 부정적 인식을 없앨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한다.                      사회변화가 가족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특히 편모가정의 어려움은 사회 변화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설명한다.                      자녀와 갈등 측면 중 두드러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모자녀 쌍을 선택하여 응답하게 한 후 비교한다.                      자녀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2단위 의사소통의 유형을 설명하며 자신의 유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몇가지 예가 적힌 종이를 나누어 주거나 차트로 제시해 주고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스스로 확인해보게 한다.                      긍정적 의사소통과 부정적 의사소통의 예를 보여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모자녀 쌍을 선택하여 부정적 의사소통과 긍정적 의사소통을 실연해 보도록 하고 그 느낌을 발표하게 한다.                      여러 쌍을 대상으로 긍정적 의사소통 방법을 연습해보도록 격려한다.                      특히 부부개로 대화결손이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상쇄할수 있을지 그 대안을 제시한다.                      대화의 다양한 방법을 몇가지 더 소개한 후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연습하도록 권고하고 가족원간 상호평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평가지의 양식을 제시해주고 가정에 부착할 긍정적 대화법 요목표를 제시, 배부한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질적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편모가정에서의 각 구성원의 역할을 지지해주고 종결한다.</p>
<p>준비물</p>	<p>필기도구, 차트 혹은 대화응답지, 대화 평가지, 긍정적 대화법 요목표</p>
<p>활동 (2~3 단위)</p>	<p>인간관계훈련 '사랑의 협상법' - 갈등해결훈련                      자존감높이기, 서로 존중하기                      유하원칙으로 이해하기                      '가장 해주고 싶은 것' '가장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                      신뢰감형성 - 장님인도하기, 바윗돌들기, 투명공놀이                      대화교실 듣기기술 실습 - 적극적 듣기, 온몸으로 듣기                      말하기 기술 실습 - '나' 전달법, '지금-여기' 표현법                      신체활동 레크레이션과 체육대회</p>

## (2) 모 대상 교육

강 의 주 제	사회 속의 나, 가족 속의 나 (2단위)
<p>목표</p>	<p>여성으로서의 긍정적 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인으로서의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p> <p>사회와 가족의 연관 속에서 상호영향요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p> <p>가족내외의 과중한 역할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법을 인지시킨다.</p>
<p>1단위 도입</p> <p>전개</p> <p>2단위</p> <p>마무리</p>	<p>여성의 전통적 생활 모습을 상기해 보도록 하고 오늘날에는 얼마나 변화되어 왔는지 비교, 설명한다.(사진, 슬라이드 등 제시)</p> <p>여성의 활동영역, 역할, 사회적 비중 등을 통계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그 당위성을 설명한다. 실제로 본인이나 주변인들의 생활내용을 비교해 보게 한 후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 질문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지 간단히 토론한다.</p> <p>진정한 남녀평등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할지 설명한다. 또 편모가정에서의 남녀평등 실현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질문한다.</p> <p>가족 내에서 평등의 실현을 위해 자녀에 대한 성역할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 제시한다. 특히 부부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성역할 내용을 제시한다.</p> <p>여성이 직업과 가족을 양립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개별 사례를 발표하게 한다.</p> <p>역할과중에 의한 스트레스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설명하고 스트레스 평가 척도를 제시, 배부하고 그 내용 및 측정방법을 설명한다.</p> <p>자녀와 역할 분담하는 방법, 스트레스 극복 전략 등을 제시해 준다.</p> <p>상실감이나 우울이 가족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상실감을 극복하는 15가지 전략을 제시해 준다.</p> <p>편모의 생활태도와 정신건강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해준다.</p> <p>여성의 자기능력 개발의 필요성과 정신적 자세에 대해 강조한다.</p> <p>스트레스를 측정해 보도록 하고 극복 전략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p> <p>가족은 사회의 주요 단위이므로 건강한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여성은 이를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함을 강조하며 종결한다.</p>
<p>준비물</p>	<p>필기도구, 사진·슬라이드, 스트레스 측정지, 상실감 극복전략 요약표</p>
<p>활동 (2~3 단위)</p>	<p>인간관계훈련</p> <p>·인생선' 그려보기</p> <p>·'마음의 창' 실습</p> <p>자존감 높이기: 자신의 장점 표현법</p> <p>상실감 극복 훈련</p> <p>수기발표</p> <p>복지교실</p> <p>·편모가족 지원 방향 토론 및 제언 자조조직 결성과 활동계획 수립,</p> <p>·친교의 시간</p> <p>신체활동</p> <p>·레크레이션과 긴장풀기</p>

(3) 자녀 대상 교육

강 의 주 제		참된 사회구성원이 되는 길 (2단위 - 강의 1단위, 자료시청 1단위)
목표	<p>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성역할을 인지하고 자율감과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p> <p>가족, 이웃, 사회의 동반자 의식을 함양하여 편모가족의 지지체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p> <p>책임감 있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미래 좌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게 한다.</p>	
1단위 도입	<p>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협동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p> <p>‘성’이란 단어에 의해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를 적도록 한다. 수렴하여 잘못 인지된 부분은 무엇인지, 성의 진정한 개념은 무엇인지 설명한다.</p> <p>남녀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성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점을 설명한다.</p>	
진개	<p>사회 속에서의 올바른 성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동성 혹은 이성부모의 결손을 사회지원 체계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설명한다.</p> <p>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 응답한다.</p>	
2단위	<p>사회는 개인이나 가족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설명한다.</p> <p>편모가족에 대한 사회지지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친족, 이웃관계의 전통적 의미를 강조한다.</p> <p>편모가족을 지원해주는 법과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제시한다.</p> <p>자신의 위치에서 행할 수 있는 이웃사랑 방법은 무엇인지 제시해보게 한다.</p> <p>자원봉사 비디오테입 시청(20분) - 대상자녀의 연령에 맞추어 선택 시청 후 감상보고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고 있는 대상자를 선발하여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게 한다.</p> <p>자원봉사의 주의사항 등을 간단히 제시해 준다.</p>	
마무리	<p>가족과 이웃과 사회는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지지체계임을 강조한다.</p> <p>특히 편모가족끼리의 자조조직 활동의 중요성을 제시해주고 실천방법을 설명한다.</p> <p>편모가족 구성원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논의하고 종결한다.</p>	
준비물	필기도구, 응답지, 비디오설비 및 테입	
활동 (2~3 단위)	<p>인간관계훈련</p> <p>고민교실</p> <p>편지쓰기</p> <p>신체활동</p>	<p>‘자아정체감’ 놀이</p> <p>체험 공유하기</p> <p>사물과의 대화</p> <p>자기 각성 훈련</p> <p>경청하기, 주의산만 치료법</p> <p>감정 조절하기</p> <p>‘끼리끼리’ 학교 - 연령별 자조그룹</p> <p>개인상담</p> <p>레크레이션과 게임</p>

2) 면접조사 결과에서 보면 편모들의 경우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단순한 교육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는 의외로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은 일회적인 강연 위주의 교육보다는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대로 편모집단의 교육에 대한 요구는 직업, 기술교육과 같은 일부 교육주제에서 교육실시 주체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큰 교육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양적인 교육보다 특성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대상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질적인 교육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사회교육 유관기관의 연계화가 요망된다(한국여성개발원, 1987). 전문교육전담기구의 구성이 어렵다면 조직간에 상호 밀접한 정보교환과 공동 훈련, 사업협력이 이루어질수 있어야 한다.

4) 연구결과에서 제시된대로 편모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주제는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족과 사회를 밀접히 연계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편모가족에 대해서는 농촌 정착 프로그램 등이 첨가되어야 한다거나, 공단지역이라면 직업과 연관된 가족생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사회적 측면

1) 가족생활을 학습이 필요 없는 분야로 인식하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생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작업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가족생활 관련 연구자들의 사명이기도 하다.

2) 앞선 연구결과에서 가족생활교육의 가장 유용한 기관으로 교육기관이 선택되고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일선 복지기관과 교육기관은 제도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원과 정보의 교류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나 공동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

다. 또한 민간단체에서의 편모가족 교육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3) 연구결과에서 지적된대로 편모가족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 부족이다. 따라서 시청각 교육 기자재, 직업·기술교육 기자재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경우, 후원기업 확보, 후원회 구성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진교육자원을 재활용 하는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재인(1995).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49호, 5-36.
- 2) 김정자(1985). 편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여성연구 3권 1호, 30-78.
- 3) 김종우, 장환일, 반건호(1995). 부의 결손이 청년의 성격요인 및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34권 1호, 216-227.
- 4) 김태미(1994). 모자가정 정서안정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5) 백경희(1987). 빈곤모자가족 가족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6) 안명자(1994). 친족지원과 사별한 편모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7) 오윤자, 유영주(1994).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권2호, 205-218.
- 8) 옥선화, 이형실, 이춘희(1994).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 부양자 요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권 2호, 61-77.
- 9) 유영주, 오윤자(1990).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권 2호, 49-68.
- 10) 이정숙(1979). 부친부재가 자녀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7권 4호, 75-93.
- 11)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 12) 최운실, 강일선(1989). 여성 평생교육의 현황과 주요문제. 「평생교육과 여성사회교육」, 한국 평

- 생교육 기구.
- 13) 최혜경, 노치영, 박의순(1994).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권 1호, 171-180.
  - 14) 통계청(1966, 1990).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 15) 한국여성개발원(1984). 평생교육을 위한 여성사회교육 실태조사 연구.
  - 16) 한국여성개발원(1987). 여성 사회교육 요구 분석.
  - 17) 한국여성개발원(1991). 부녀지도사업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18) 한정자(1984). 여성단체 교육프로그램 분석 및 여성 의식화 교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논집* 제1권, 111-142.
  - 19) 홍숙자, 이형실, 전길량(1995). 성인자녀를 위한 노인부양 교육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3권 5호, 197-209.
  - 20) Amato, P.R.(1987). Family process in one-parent, stepparent and intact families: The child's point of 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2), 327-337.
  - 21) Berg, B. & Kelly, R.(1979). The measure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broken rejected and accept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2, 363-369.
  - 22) Berman, W.H. & Turk, D.C.(1981). Adaptation to divorce: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1), 179-189.
  - 23) Booth, A. & Amato, R.(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96-407.
  - 24) Campbell, M.L. & Moen, P.(1992). Job-family role strain among employed single mothers of preschoolers. *Family Relations* 41(2), 205-211.
  - 25) Gerstel, N.(1988). Divorce and kin ties: The importance of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209-219.
  - 26) Hansen, S.M.(1986). Healthy single parent families. *Family Relations* 35(1), 125-132.
  - 27) Harriman, L.C.(1986). Teaching traditional vs. emerging concepts in family life education. *Family Relations* 35(4), 581-586.
  - 28) Hetherington, E., Cox, M. & Cox, R.(1982).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young children. In M.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Y.: Erlbaum.
  - 29) Kennedy, G.E.(1985). Family relationships a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from single-parent, blended and intact families. *Family Perspectives* 19(2), 117-126.
  - 30) Levinger, G. & Moles, C.(1979). *Divorce and separation*. N.Y.: Basic Books Inc.
  - 31) McLanahan, S. & Sandefur, G.(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32) Peterson, J.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2), 295-307.
  - 33) Webster-Stratton, C.(1989). The relationship of marital support, conflict, and divorce to parent perceptions, behaviors, and childhoo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417-430.
  - 34) Weinraub, M. & Wolf, B.M.(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s on mother-child interactions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54, 1297-1311.
  - 35) Weiss, R.S.(1979). Growing up a little faster: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in a single-parent household. *Journal of Social Issues* 35, 97-111.